

목포농협 ‘상호금융대출금 8천억 달성탐’ 수상

건전성·성장성 인정...2021년 7천억 달성
예수금 1조1천억 돌파·로컬푸드매장 성과
박정수 조합장 “지역 동반 성장기관 될 것”

목포농협이 상호금융대출금 8천억원 달성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5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올해 9월29일 기준 상호금융대출금 8천억원을 달성하며 성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탐’을 수상했다.

전남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중앙회 관계자와 목포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지역 금융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탐은 지역 농·축협이 여신 관련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1천억원 단위의 대출 성장을 이뤘을 때 수여되는 상으로, 조합의 금융 역량과 지역 내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목포농협은 지난 9월29일 기준 상호금융대출금 8천억원을 달성하며 성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대출금 달성탐’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수상식 모습. <목포농협 제공>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조합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지역 농업 및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금융 정책이 꼽힌다. 목포농협은 2021년 7천억원 달성탐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이후 4년 만에 8천억원을 달성하며 금융 규모는 물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5년 3분기 가결산 결과,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은 1조1천억원, 상호금융 대출금은 8천

2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금융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경제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25년 개점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북항점은 하루 평균 1천800여명이 방문해 일평균 4천800만원의 매출

을 올리고 있다.

임대사업 또한 1층에는 베이커리와 분식점, 2층에는 헬스장이 운영 중이며, 3층과 4층에는 신경의과와 식당이 입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조합원에게 주요 경영 실적과 사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농협은 매분기 ‘업무운영 공개행사’를 여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합원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목포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조합원 실익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목포시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박차

도, 3개 농업법인 15억 지원

올해까지 총 45개소 기반 확대

전남도가 지역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3개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5일 “2026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에 영광 나랏나랑유기테마파크영농조합법인, 해남 인수영농조합법인, 화순 해품살영농조합법인을 발탁,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비 10ha (비 이외 품목 2ha) 이상을 인증 받은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에서 사업 희망자를 추천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과 생산·유통 계획에 대해 서류·현장평가를 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단 사업 대상지와 사업비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앞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협력해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가공·유통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올해까지 총 45개소(생산시설 8, 가공시설 28, 유통시설 8 교육장 1), 23

4억원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기반을 확대해 왔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중심지로서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 저탄소 유기농업 확산, 유기 가공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유기농·무농약)은 전국의 50%를, 유기농산물은 전국의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영사원 기자

농협전남본부, RPC지역협의회 수확기 임시총회

추곡수매 대응·피해 벼 매입 적극 노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5일 “전남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수확기 농협RPC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 김경재 황산농협 조합장(광주·전남RPC협의회장), 문

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전국RPC협의회장) 및 광주·전남RPC농협 조합장 30여명과 방철환 양곡사업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쌀 수급 및 수확기 전망, 수확기 정부의 대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향후 수급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남농협은 올해 개췌무늬병으로 피해

를 입은 농민들이 재해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벼 매입에 적극 노력하고 차년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전남농협은 수확기가 10여일 지연된 상황에서 공공비축과 자체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농심전심 운동’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지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영암 시종면 송산마을과 영광 묘량면 운암마을 등 2곳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영광 운암마을 체험 프로그램. <전남도 제공>

영암 송산·영광 운암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장비·프로그램 개발비 등 육성 지원

전남도는 5일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영암 시종면 송산마을과 영광 묘량면 운암마을 등 2개소를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ha 이상으로 이 중 유기농 인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신청한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개 마을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

설과 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사업’으로 마을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 받아 주민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이라며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있다.이번 하반기 신규 지정 2개소를 포함 총 7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1차 15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2차 6가구>
입주완료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